

# 광주·전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공모 또 무산되나

### 건립·운영비 지자체 부담 커 외면...국비 지원 확대가 관건 다음달 20일까지 공모...장애아동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지난해 자치단체 외면으로 무산됐던 광주·전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이 올해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자치단체 부담액이 과도하게 많아 정상 추진될지 미지수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0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

요에 부응하려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정부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됐다. 2018년 첫 번째 공모에 대전시가 뺏겼고 이어 경남 창원도 선정됐으나 광주 전남권의 경우 신청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지난해 광주시는 북구 양산동에 시유지 9222㎡를 사업부지로 마련했으나, 기관 공모에 관심을 보였던 지역 의료기관이 적자 등을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정하지 못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 중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건립·운영비 부담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사업은 국비·지방비 부담이 5대5로 권역별 사업비는 국비 78억원을 포함해 156억원 규모이다.

실제 건립비는 대전권이나 경남권의 경우 300억여원에 달해 정부 지원 78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차 공모 당시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5대5였던 점을 감안, 2차 공모에서는 시군비 부담을 크게 줄였는데도 희망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공모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을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을 꺼릴 가능성이 크

다. 광역지자체는 건립비의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 지원 방안도 요구했지만 올해 공모에서도 관련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올해 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인데 지난해처럼 공모에 나설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 시국이 대체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기초 지자체와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초대 전남관광재단 대표에 이진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7월 신설되는 전남도 관광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이진철(사진)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전남도는 18일 "인사권자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신임 이진철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재단 출범식과 조직구성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 현안을 살피는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표이사는 "관광 분야는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중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 산업"이라며 "관광재단을 명실상부한 관광전담기구로 육성해 전남 관광객 7000만 시대,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에는 10명이 지원했다. 대표이사 추천위원



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인사권자에게 추천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 연구원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확정했다.

이 대표이사는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40여년간 재직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경영·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이사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전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원장,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전공대 법민주시민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첨단3지구 내 AI집적 연구복합단지 조성

### 4만6200㎡에 3천939억 투입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 의결

광주시 북구와 장성군 일대 광주연구개발특구 미개발지인 첨단3지구(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AI 집적단지) 중심의 연구산업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다음 주 내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일 361만6853㎡에 이르는 미개발지로, 개발이 완료된 첨단1·2지구 에 이어 광주·전남의 주요 연구·산업거점으로 조성된다.

개발계획 지구 전체의 32.9%(119만

1000㎡)가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를 포함한 연구·산업용지로, 17.4%(62만 8000㎡)가 주거·상업용지로 공급되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가 49.7%(179만 8000㎡)를 차지한다.

4만6200㎡ 부지에 3천939억이 투입되는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해 우선 추진한다. 주변 지역에 정보통신,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용지 중 제조업 용지는 '연구, 광기 반응복합, 스마트케어가전, 차세대전자, 나노산업, 의료산업' 등을 유치업종으로 계획했으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2.6%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된다. 또 종사자와 인접 지역 실수요자 등의 주거수요에 맞춰 약 7800호 규모의 주거용지가 마련되며, 이 중 약 30%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비 오는 날...한줄서기 등교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용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줄서기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용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줄서기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힘 모으자”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동·경제·시민단체 협력 결의

광주 노사민정은 18일 광주 빛그린 산단 내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 상생형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용섭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최형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장, 윤종해 한국노동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병규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광주시의 노사 협의의 기구인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추진 상황, (주)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설립 현황, 광주형 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 추진계획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공장 건립 현장을 둘러보며 노사정 간 긴밀한 소통, 노동자 안전, 여성 근로자 배려 등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 청년 채용 비율 확대, 여성 근로자 일적 채용 등을 건의했다.

최형기 센터장은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성과인 만큼 일자리위원회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른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주목하는 만큼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 시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 관계를 극복해 한국 경제의 제도와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본격 가동

광주시가 지역 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18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판식을 열어 다른 지역 지원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호남권역 공동 방역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소연 조선행 예방의학 교실 교수를 단장으로 예방의학, 보건학, 면역학, 간호학 등 전문 연구인력 8명으로 구성됐다.

평상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감염병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염병 담당자 교육 등을 맡는다. 비상시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해 발생 감시, 현장 역학조사, 지역사회 확산 대응 전략 마련 등 역할을 한다.

지원단은 최근 코로나19 의심 학생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 파악 등 지원업무를 선보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여수산단 환경종합대책 추진

### 거버넌스 16차 회의

전남도가 지난 17일 '여수국가산단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갖고 여수산단 환경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여수시청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위원들은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연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위해성평가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안을 비롯 거버넌스 권고안,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스터플랜안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법률적 검토와 해수 수질 모니터링 지점 추가를 반영한 환경오염실태조사 등의 연구 과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연구과업 비용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가 부담하고, 오는 7월 중 연구제안서 공모·평가 절차를 거친 후 수행기관을 결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17차 회의는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과 실무위원회 구성안, 지도·점검인력 총원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22일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